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서혜은*

— <차 례> —

1. 서론
2.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배경과 원인
3.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
4.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소설사적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과 소설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활자본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기간 동안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이 획득한 대중성과 경관 33장본 <쌍주기연>의 대중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이다. 경관 <쌍주기연>은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의 속성이 공존하는 작품이지만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귀족적 영웅소설의 성격은 약화되고 애정소설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은 다소 약화되었다. 이러한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은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의 유형과 성향이 변모하고 활자본 <삼생기연>이 출현하는 동인이 되었다는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경관본, 대중성, <쌍주기연>, <삼생기연>, 귀족적 영웅소설, 애정소설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1. 서론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 속에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부각된 고전소설 <雙珠奇緣>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작품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쌍주기연>은 필사본·경판본·활자본이 모두 현전하는데, 경판본은 33·32·22·16장본의 형태로 4차례나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판 33장본은 1850년에, 활자본은 1915년에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쌍주기연> 이본 목록

| 연번 | 제목 | 장수 | 형태 | 소장자 및 소장(발행)처 | 필사 및 발행 연도 |
|----|-----------------------|------|-----|--|---------------------------------------|
| ① | <쌍주기연 권지단> | 33 | 경판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갑각 삼월 회일 ¹⁾ 庚戌 十一月 武橋新刊 |
| ② | <쌍주기연 권지단> | 32 | " |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 |
| ③ | <쌍주기연 권지단> | 22 | " | 고려대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宋洞新刊 |
| ④ | <쌍주기연 권지단> | 16 | " |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
| ⑤ | <쌍주기연 권지일> 남궁 설 편집 | 100쪽 | 활자본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활자본고소설전집』26 | 大正四年 한성서관 |
| ⑥ | <쌍주기연 권지단> | 67 | 필사본 | 영남대학교 소장 | 을유 |
| ⑦ | <쌍주기연 권지단> | 65 | " | 단국대 율곡도서관 소장 | |
| ⑧ | <쌍주기연> | 42 | " | 조희용 소장 | 율회사년 ²⁾ 실물 미확인 |

따라서 <쌍주기연>은 분명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작품으로

- 1) 표지에 '갑각 삼월 회일 기록홍노라 창원 니진스 가내덕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364쪽; 한정미, 『<쌍주기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7쪽 참조.

생각된다.³⁾ 하지만 <쌍주기연>의 지명도는 지극히 낮은 편이다. <쌍주기연>과 동일하게 경관으로 4차례 출간된 작품에는 <금방울전><장풍운전>과 같은 작품이 있으며, 조선 후기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우치전><장화홍련전><사씨남정기><숙영낭자전>이 경관본의 형태로 3차례 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⁴⁾ 또한 현전하는 52종의 경관본 소설의 대부분이 1~3차례 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쌍주기연>이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4차례나 간행된 것은 분명 소비자인 독자층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⁵⁾ 그렇다면 <쌍주기연>은 조선 후기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쌍주기연>에 대한 선행 연구는 경관본을 중심으로 한 판본 연구와 여러 흥미 요소들을 삽입하여 통속화된 작품으로 규정한 논의가 전부이다.⁶⁾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쌍주기연>의 대중성에 대한

3) <서천홍전>이라는 작품이 경북 북부 여성 독자층들에게 향유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실제로 <서천홍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천홍이 <쌍주기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천홍전>은 <쌍주기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561~562쪽).

4)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582~592쪽; 서혜은, 『경관 방각소설의 대중성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2쪽.

5) 더구나 선행 연구에서는 경관 <쌍주기연>의 18장본의 존재 가능성까지 제시된 바 있다(이창현, 『<쌍주기연> 판본 연구』, 『인제논총』9, 인제대학교, 1993, 453~459쪽).

6) 이창현(1993), 앞의 논문, 447~462쪽; 한정미(2001), 앞의 논문, 1~106쪽; 한정미, 『<쌍주기연>에 수용된 삽화 고찰』, 『대학원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149~173쪽.

<쌍주기연>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쌍열옥소삼봉><옥주호연>과 함께 기연·기봉소설로 분류하면서 이들 작품과의 비교 하에서 왕혜란을 상징하는 雌珠와 서천홍을 상징하는 雄珠의 기연을 통한 만남을 강조하면서 적장 인물로서의 운명적인 삶을 기원 질서에 가장 충실히 구성해 놓은 작품으로, 뚜렷한 문제의식을 지니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의 【표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쌍주기연>은 필사본·경판본·활자본이 모두 현전하는 작품이지만 현전하는 필사본은 2종이며, 경판본이 4종, 활자본이 1종인 것으로 보아 <쌍주기연>은 주로 경판본의 형태로 향유된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통속성은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속성의 일부로 알려져 있다.⁷⁾ 그렇다면 경판 <쌍주기연>의 판본에 대한 연구와 <쌍주기연>을 통속화된 작품으로 규정한 선행 연구는 경판본 <쌍주기연>의 대중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판 <쌍주기연>이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대중성을 확보했던 작품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경판본 소설 가운데 독자층의 선호도가 높았던 작품들이 대체로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출간된 것처럼 <쌍주기연> 역시 33장본의 형태로 출간되어, 점차 32·22·16장본의 형태로 축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출간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⁸⁾ 필사본과 달리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경판본은 소비자인 독자의 취향을 적극 고려해서 생산된 상업적 출판물이며, 출판업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독자층이 특히 선호한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축약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쌍주기연>의 활자본 역시

지 못한 작품으로 논의한 연구도 있다(전상경, 「기연·기봉소설의 성격과 사회의식 -<쌍주기연><쌍열옥소삼봉><옥주호연>을 대상으로」,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1986, 15, 49쪽).

7) 권영민, 「대중문화의 확대와 소설의 통속화 문제」, 『한국 민족 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504쪽;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 동연, 1995, 15, 176~187쪽.

8) 이창현(1993), 앞의 논문, 452~459쪽.

경관본이 획득한 대중성에 기반을 두고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쌍주기연>의 경관본 가운데 가장 먼저 출간된 경관 33장본이 1850년에 출간되었고 활자본이 1915년에 출간되었는데, 활자본과 경관 33장본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관 <쌍주기연>이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먼저 경관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쌍주기연>의 경관 33·32·22·16장본과 활자본의 내용 비교를 통해 경관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다음, 이 작업을 토대로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성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배경과 원인

1)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의 대중성

<쌍주기연>은 애정소설의 제명을 취하고 있고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가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상당히 부각되는 귀족적 영웅소설의 유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⁹⁾ 귀족적 영웅소설은 조선 후기 상당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소설의 유형으로, 경관본 소설로도 출간되어 대중성을 확보하

9) 그렇기 때문에 일명 <서천홍전>으로도 향유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이원주(1975), 앞의 논문, 561~562쪽).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경판본 소설의 52종 가운데 영웅소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조웅전>과 <소대성전><용문전>을 포함하여 대략 17종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귀족적 영웅소설이기 때문이다.¹⁰⁾ 이처럼 경판 <쌍주기연>은 귀족적 영웅소설이 확보한 대중성에 힘입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 중심적 서술 시각으로 형성되어 지배 체제와 윤리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귀족적 영웅소설은 경판본 소설의 독자층의 호응을 얻기에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판본 소설이 출간된 조선후기 서울은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왕과 고위 관료, 종실 등 주로 지배층이 거주하는 권력 도시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던 곳이었다.¹¹⁾ 따라서 조선 후기 서울에서 출간된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경판본 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지역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귀족적 영웅소설과 같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판 <쌍주기연>은 귀족적 영웅소설과 같은 유형을 선호했던 경판본 소설 독자층의 성향에 맞추어 출간된 작품으로 보인다.

이처럼 <쌍주기연>에는 경판본 소설 독자층이 선호한 귀족적 영웅의 형상을 드러내는 서천홍의 활약상이 부각되어 있지만, 천정연분으로 설정

10)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영웅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에는 <김원전><김홍전><남정팔난기><소대성전><용문전><월왕전><임경업전><장경전><장백전><장풍운전><전우치전><정수정전><조웅전><현수문전><홍길동전><황운전> 등이 있으며, <임경업전><전우치전><정수정전><홍길동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족적 영웅소설의 유형에 포함되는 작품들이다.

11)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41쪽.

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 또한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슬을 매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에서 천자의 아들인 제왕은 서천홍과 왕혜란 사이의 애정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천자에 의해 애정 갈등은 해소된다. 그리고 구슬을 맺어진 기이한 인연이라는 제명을 고려한다면 <쌍주기연>은 주인공 남녀의 애정문제에 중점을 두고 창작된 작품임은 분명하다.

애정소설 역시 귀족적 영웅소설과 함께 경판본으로 출간되어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소설의 유형이다. 귀족적 영웅소설이 경판본으로 출간된 소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 유형이라면 애정소설은 귀족적 영웅소설과 중국 번역·번안소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 유형이다.¹²⁾ 특히 <춘향전>과 <숙영낭자전>을 비롯하여 <숙향전><백학선전><금방울전>등과 같이 경판본으로 출간된 작품들이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출간된 점을 고려한다면 애정소설 역시 귀족적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은 경판본으로 출간되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를 근간으로 하면서 양반 남성인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부각되는 체제 긍정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쌍주기연>은 경판본으로 출간되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2) 서혜은(2007), 앞의 논문, 11쪽.

2) 경관 33장본 〈쌍주기연〉의 대중성

경관 <쌍주기연>은 33·32·22·16장본이 현전하는데, <쌍주기연>이 지속적으로 장수를 줄이면서 반복적으로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출현한 경관 33장본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이 본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전하는 <쌍주기연>의 경관본은 모두 경관 33장본을 底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관 33장본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는 32장본은 33장본이 대중성을 확보했기에 출간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경관 33장본의 결말에 서천홍이 선관에게 구슬을 돌려주는 내용이 경관 32장본에는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경관 32장본에 삭제된 이 부분의 내용이 경관 22장본과 16장본에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관 22장본과 16장본은 경관 32장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33장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¹³⁾ 그렇기 때문에 현전하는 <쌍주기연>의 경관본은 모두 33장본을 저본으로 출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활자본 <쌍주기연> 역시 경관 33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은 1850년에 간행되었고 활자본은 1915년에 간행되어 경관 33장본이 활자본보다 먼저 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경관 32·22·16장본에는 삭제되어 있는 내용이 활자본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경관 32장본에 삭제되어 있는 결말의 내용과 22장본과 16장본의 각각에는 삭제되어 드러나지 않는 장면인 천자가 제왕의 직위를 박탈하는 내용과 서천홍이 남만왕을 태상왕에, 왕자를 남만

13) 이창현(1993), 앞의 논문, 452~459쪽.

왕에 봉하는 내용과 함께 서천흥이 양신청과 정을 나누는 내용 그리고 서천흥이 오이랑을 처형하는 부분이 활자본에서는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쌍주기연>의 활자본 역시 경판 33장본을 저본으로 출간된 이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쌍주기연>의 모든 경판본과 활자본은 경판 33장본을 저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쌍주기연>의 경판 33장본은 경판본 가운데 가장 먼저 출간되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이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판 33장본이 획득한 대중성은 경판 <쌍주기연>이 장수를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출간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경판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

앞서 경판 <쌍주기연>의 33·32·22·16장본과 활자본 모두 33장본을 저본으로 출간된 사실을 확인했다. <쌍주기연>의 경판본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활자본까지 출간된 것은 경판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판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경판 <쌍주기연>의 대중화 과정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의 【표2】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애정 서사의 완결성 강화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32장본의 내용은 동일하게 전개되지만 32장본에는 33장본의 결말에 선관이 서천홍의 꿈에 나타나 자웅 구슬을 돌려 달라고 한 뒤에 그 구슬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하지만 32장본 보다 늦게 출간된 22장본과 16장본의 결말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33장본과 동일하게 전개된다. 다음의 인용문은 각각 경관 33·32·22·16장의 결말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① 승상이 장삼 부 〓의 은공을 칭각하고 속냥하고 슈만금을 주니 장삼이 또한 거부가 되니라 세월이 여류하여 위공이 팔십오 세의 기세하고 티부인은 팔십삼 세의 기세하니 승상이 삼삼맞춘 후 삼공의 저하여 삼도육서지니고 치국안민하며 니음양순스시하니 사히 티평허더라(중략)일 〓은 승상이 일몽을 어드니 금관 홍포입은 선관이 내려와 읍왈 인간 팔십년 영육이 었더뇨 넷일을 칭각하느나 즈옹주는 옥데게 잇는보비라 그티에게 빌나본 후 인으로 텃되 명 〓하여 일동일정을 하늘이 다슬피지말 알게하고 그티 낭인의 일티환장을 습으시미니 너게 전허라하시고 금낭의 든 구슬을 너여가지고 가거늘 승상과 부인에게 각하여 구슬을 츠즈니 금낭 쥘이라(중략)왕부인은 삼즈이□을 두고 삼남에게 각 〓 이남일녀를 두어 선 〓흔 즈손이부 □□□□□□□□나고지너 문장호걸이 디 〓모 변부절허니라¹⁴⁾

② 승상이 장삼 부 〓의 은공을 칭각하고 속냥하고 슈만금을 주니 장삼이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관 33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32-2~33-1쪽.

또한 거부가 되니라 세월이 여류하여 위공이 팔십오 세의 기세하고 티부인은 팔십삼 세의 기세하니라¹⁵⁾

③ 승상이 장삼 부"의 은공을 칭각하고 속냥하고 슈만냥을 주니라 세월이 여류하여 위공이 팔십오세의 기세하고 티부인은 팔십삼 세의 기세하니 승상이 삼삼맛춘 후 삼공의 거학미 치국안민하니 사히 티평허더라(중략) 일"은 승상이 일몽을 어드니 금관 홍포입은 선관이 내려와 읍왈 인간 팔십년 영육이 엇더호요 넷일을 칭각호느냐 즈옹주는 옥계계 잇는 보비라 그딤의게 빌니든 후인으로 턴되 명"하여 일동일정을 호들이 다슬피지물 알게하고 그딤 낭인의 일딤환장을 습으시미니 닉게 전하라 하고 금냥의 든 구슬을 가지고 가거늘 승상과 부인이 경각하여 구슬을 츠지니 금냥 썸이라(중략)왕부인은 삼즈일녀를 두고 삼낭의게 각" 이남일녀를 두어 션"호 즈손이 부풍모습하여 일문지니 문장 호걸이 디"로 연면부절하니라¹⁶⁾

④ 승상이 장삼 부"의 은공을 칭각하고 속냥하고 슈만냥을 주니라 세월이 여류하여 위공이 팔십오세의 기세하고 티부인은 팔십삼세의 기세하니 승상이 삼삼맛춘 후 삼공의 거학미 치국안민하니 사히 티평허더라(중략)일"은 승상이 일몽을 어드니 금관 홍포입은 선관이 내려와 읍왈 인간 팔십년 영육이 엇더호요 넷일을 칭각호느냐 즈옹주는 옥계계 잇는 보비라 그딤의게 빌니든 후인으로 턴되 명"하여 일동일정을 호들이 다슬피시를 알게하고 그딤 낭인의 일딤환장을 습으미니 닉게 전하라하고 금냥의 든 구슬을 가지고 가거늘 승상과 부인이 경각하여 구슬을 츠지니 금냥 썸이라(중략)왕부인은 삼즈일녀를 두고 삼낭의게 각" 이남일녀를 두어 션"호 즈손이 부풍모습하여 일문지니 문장호걸이 디"로 연면부절하니라¹⁷⁾

15) 경관 3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경인고소설관각본전집』4, 연세대학교, 1975, 537쪽.

16) 고려대 소장 경관 2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22-1쪽.

1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관 16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16-2쪽.

앞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경관 33장본의 결말 내용이 32장본에서는 삭제되어 있지만 22장본과 16장본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경관 <쌍주기연>의 독자층들이 32장의 결말 형태보다는 33·22·16장본의 결말 형태를 더욱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경관 <쌍주기연>의 결말은 32장본과 33·22·16본이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서천홍과 왕혜란이 자옹의 구슬로 맺어진 천정연분으로 설정되었다는 내용은 장수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이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부인이 몸이 곤하여 침석의 『지혔더니 홀연 일위 동지 공중으로 내려와 절하고 왈 쇼즈는 틱을성이옵더니 득죄하여 인간의 격강홀시 의탁할 곳을 모르옵더니 망월스 부체 이리로 지시혔읍기로 왓스오니 어엿비 너기쇼셔 이 구슬은 옥데의 잇는 즈옹쥬라 암즈썸 쓴 구슬은 월궁선의 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고 슈옹썸 쓴 것은 이 구슬이오니 심 『장지혔었다가 후일가연을 일우쇼셔 하고 변하여 말만흔 별이 되어 부인품으로 드러오거늘(하략)』¹⁸⁾

② 쇼저의 명은 혜란이니 칭시의 공과 부인이 일몽을 어드니 흔 선녀 공중으로 내려와 지비 왈 쇼녀는 틱을성을 위하여 옥제 명으로 세상의 나옵스니 이 구슬은 즈옹이 잇는 거시라 슈옹썸 구슬은 틱을성이 가져스니 닉두 이 구슬노 턴연을 츠즈쇼셔 상테 명흐신 비니 곱히 감흐쇼셔 언필의 부인의 품의 드니(하략)』¹⁹⁾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관 33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2-1쪽; 경관 3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앞의 책, 522쪽; 고려대 소장 경관 2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1-2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관 16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1-2쪽.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관 33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8-1쪽; 경관 3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앞의 책, 525쪽; 고려대 소장 경관 2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5-2~

앞의 인용문에서도 확인되듯이 경관 <쌍주기연>의 서두에 제시된 서천홍과 왕혜란의 출생담에는 이들이 전생에 각각 태을성과 월궁 선녀로 득죄를 하여 人世에 내려오게 되었고 자웅의 구슬을 매개로 인연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천홍과 왕혜란이 혼인한 뒤에 서천홍이 남만국을 정벌하러 간 사이, 천자의 아들 제왕으로 인해 왕혜란이 애정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시비 월향과 춘섬의 도움으로 망월사에서 이 부인과 상봉하고 서천홍과 재회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쌍주기연>에서 확인되는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가 천정연분을 근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인세에서 구슬을 매개로 인연이 맺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경관 33·22·16본의 결말에 서천홍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 자웅 구슬을 가지고 가는 내용은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의 완결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경관 33장본의 출간 이후에 간행된 32장본에는 이 부분이 삭제된 반면, 32장본의 출간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22장본과 16장본의 결말에는 33장본의 결말 형태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관 <쌍주기연>의 독자들은 32장본 형태의 결말보다는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에 대한 완결성이 강화된 33·22·16본의 형태를 더욱 선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경관 <쌍주기연>은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에 대한 완결성을 강화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영웅의 활약상 축소와 애정소설로서의 면모 부각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32장본은 결말 부분에서만 그 차이를 받

6-1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관 16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5-1쪽.

견할 수 있지만, 33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출간된 22장본과 22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출간된 16장본은 장수의 차이만큼이나 축약 또는 삭제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33장본과 22장본, 22장본과 16장본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축약 또는 삭제된 부분은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먼저 경판 33장본과 22장본을 비교했을 때, 경판 22장본에서는 서천홍이 남만왕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군담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각각 경판 33장본과 22장본으로, 서천홍이 부원수 임충, 좌선부 주영, 우선봉 여자춘과 함께 남만왕을 생포하는 과정을 제시한 부분이다.

① 원슈 제장드려 왈 만적 파하기를 엇지 광일지구허리오 부원슈 님충을 불너 왈 그되는 오천병을 거느려 가친을 모시고 온 만국 스름이 「시니 다리고 산곡 쇼로」 가 만진을 지녀 미복하여다가 만적이 펴귀허거든 길을 막으라 하고 좌선봉 주영과 우선봉 녀즈춘을 불너 왈 그되는 각 「삼천군을 거느려 여츠」 「하라 하고 원슈 핑시 환통으로 더브러 삼천군을 거느리고 겁치홀시 후 응스 슈성으로 장졸을 거느려 디척을 직히게 하고 삼경후 함픽하여 적진 근처의 다」라 동정을 살피니 군식 다 좁이 겁혔고 고요흔지라 원슈 장졸을 성밧기 머므루고 칼을 들고 몸을 쇼」와 성의 울으니 제장이 원슈의 효용흔를 갈척허더라 원슈 슈성장졸을 죽이고 문을 녀니 핑 한 이장이 급히 술근입성흔지라 원슈 친이 상방검을 들고 디척로 당선하여 드러가니 이찌 만왕이 좁이 겁혔는지라 일성포항의 군식 물미듯 드러오니 만왕이 디경하여 의갑을 못 입고 겨유 말을 타고 남문을 열고 다라나니 만신 제장이 능히 슈족을 놀리지 못하여 즈상천답하여 죽는 지 부지기쉬라 만왕이 다라나다가 겨오 슈십 가 가서 홀연 산곡으로서 일성포항의 일원디장이 가는 길을 막으니 이는 부원슈 임충이라 만왕이 디경하여 서편을 향하고닷거늘 원

쉬 디경 즐 왈 만적은 쉰니 항복하라 소릭 응장하여 노룡이 창희의셔 우는
 듯 멩희 공산의셔 소리지르느 듯 덩신이 황홀하여 능히 닳지 못하느니라 원
 쉬 말을 모라 크게 혼소리를 지르고 원비를 늘히여 만왕을 싱금하여 말기
 나리치니 군식 일시의 달녀드러 결박하느니라²⁰⁾

② 원쉬 부원슈 님총을 불너 왈 오천군 거느려 가친 모시고 온 만국 슝
 을 다리고 만진을 지느 미복하여다가 만적오느 길을 막으라하고 좌선봉 주
 영과 우선봉 녀즈춘을 불너왈 그디는 각 〃 삼천군 거느려 여츰 〃 〃 하라 하
 고 원쉬 핑신 한총으로 더브러 삼천군 거느리고 겁칙홀시 후의스 주성으로
 디척를 직히게 하고 삼경후 적진 근처의 가 동정을 살피니 군식 즘이 겁허느
 지라 장졸을 성밧기 머무르고 칼을 들고 몸을 쇼스 성의 올느 슈문장을 죽이
 고 문을 녀니 모든 군식 입성하거늘 원쉬 상방검 들고 당선하여 나아가니
 이쎄 만왕이 즘이 겁허느니라 군식 물미듯 드러오니 만왕이 디경하여 남문
 을 열고 닳더니 만진 장졸이 즘상 텅답하여 죽느 지 만터라 만왕이 게우 슈
 십 니 가서 홀연 일성 포향의 일원디장이 길을 막으니 이는 부원슈 님총이라
 디경하여 서호로 닳거늘 원쉬 급히 썩라 만왕을 싱금하니 군식 다라드러 결
 박하느니라²¹⁾

이처럼 경관 <쌍주기연>의 33장본과 22장본을 비교했을 때, 22장본에
 는 서천홍이 남만왕을 생포하는 과정이 축약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2장본과 16장본을 비교했을 때, 16장본에는
 서천홍이 남만왕의 태자를 남만왕으로 봉하고 남만왕을 태상왕으로 봉하
 는 내용과 서천홍이 양신칭이라는 인물과 정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서천
 홍이 도적 오이랑을 처형하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22장과 비교했을 때,
 16장본에서 삭제된 내용들은 33장본과 22장본을 비교했을 때, 22장본에

20)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관 33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18-2~19-2쪽 참조.

21) 고려대 소장 경관 2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13-2쪽.

서 축약된 내용과 함께 모두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쌍주기연>의 경판본은 33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22장과 16장본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에는 변모가 없다.

<쌍주기연>은 제명에서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지만 실제 작품의 내용에서는 양반 남성인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상당히 부각되는 귀족적 영웅소설의 유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경판 <쌍주기연>은 귀족적 영웅의 형상을 드러낸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줄여가면서 대중성을 확보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판 <쌍주기연>의 독자층들이 점차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보다는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기에 가능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판 <쌍주기연>의 출판업자들은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축약 및 삭제하여 귀족적 영웅소설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애정소설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쌍주기연>에 드러나는 귀족적 영웅소설의 성격은 다소 약화되고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애정 갈등의 심화와 보수적 성향의 약화

1915년에 출간된 <쌍주기연> 활자본의 존재는 경판 <쌍주기연>의 대중성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쌍주기연> 활자본의 내용이 경판 33장본 <쌍주기연>과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판 33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출간된 활자본은 경판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특정 부분의 서사가 확장되거나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활자본 역시 경판

본과 마찬가지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상업적 출판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서 추가 및 확대된 내용은 <쌍주기연>의 경관본 독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서 추가 및 확대된 내용 또한 경관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양상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활자본을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서 추가 및 확대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는 양반 여성인 서천홍의 모친인 이부인과 서천홍의 아내 왕혜란과 관련된 수난의 서사가 확대되어 있다. 경관 33장본에서는 도적 오이랑이 서천홍의 부친 서경이 집을 떠난 뒤에 혼자 남겨진 이부인을 납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활자본에서는 오이랑이 이부인을 납치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 나무 장사를 하면서 이부인을 납치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으며 여승 혜광이 등장하여 이부인에게 도적이 침입하여 아들과 헤어진 뒤 13년 후에야 재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다.²²⁾ 또한 활자본에서는 경관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생이라

22) ① 초시 소귀 남계현 서산 가운데 흐 도적이 둔취하여 민간으 단이며 짐물을 로략하고 부녀를 겁탈 홀시 그 도적의 주장은 오이랑이니 용뎡이 과인하고 위인이 흥영하야 오륙십 강도를 거나려 잇더니(중략) 닥 쏘드르니 서상셔는 남만국의 봉사가고 그집 창두를도 다 장사허려다난다하니 우리등이 일제히 나아가 반야에 겁략하면 가히 십년턱을 양식이며 직보를 으드리라(중략)오리랑이 뒤왈 츠 계교가 ㄹ장 묘타하고 죽시 은즈 오백양을 가지고 슈슈여인이 산에 내려 스면으로 허어져 말 사십필을 스셔 가지고 산에 울너와 십여일을 잔치하고 말 잘 먹이니 그말리 살찌고 소용흔지라 오이랑이 횡장을 가보야이 장속하고 일직 약간 나무를 조고만치 실고 횡하여 화계촌 근처로 허어져 단니며 나무를 파니 흑 스는 스펀도 잇고 아니스는 스펀도 잇더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13~14쪽)

② 부인이 그 비둘기 나는 소리에 놀나끼니 침상일몽이라 마음에 가장 비적하야 그

는 인물이 등장하여 제왕과 함께 왕혜란의 납치 계획을 도모하며, 왕혜란에게 죽은 부친이 현몽하여 제왕으로부터 납치당할 위기에 처한 왕혜란에게 도주하라고 일러주는 장면도 추가되어 있다.²³⁾

둘째, <쌍주기연>의 경관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는 천민 여성의 적극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서사가 추가되어 있다. 경관본에서 왕혜란은 제왕의 납치 계획을 눈치 채고 시비 월향을 불러 자신을 대신하라고 이르고 시비 춘섬과 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활자본에서 시비 월향이 왕혜란에게 춘섬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그리고 제왕에게 왕혜란 대신 납치된 월향의 정체가 밝혀지자 경관

길흉을 아지못하고 가장 민을 하야 하더니 날이 발그미 혼 녀승이 들어와 시쥬흠을 청
 호거늘(중략)부인왈 너겨야야 일몽을 으드니 몽스여츠 " " 혼지라 그길흉이 엇더호노
 승이 디왈 호사름이 창을 들고 들어오니 이는 도적 " 쓰이오 비돌기를 놀녀여 좃다하
 니 비돌기는 즈손의 비함이니 금년의 부인 신수 불길하야 춘간소천을 말리에 원별하
 시고 동절에 도적의게 누만지물을 일코 쥐즈와 상리하시리니 십삼년 후에야 부 " 모
 즈 셔로 맞나 절기시리이다 이에 텃정하시미니 인역으로 못하시리이다(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15~16쪽)

- 23) ㉠ 녀싱왈 연죽 셔학스-이제 남만에 출전치 아니잇가 왕왕 과연 평만디원승로 출스
 호엿나니라 녀싱 왈 소싱이 디왕을 위하야 계교컨디 가히 디왕으로 호야금 왕시를
 어더즐기시게 하리이다(중략)녀싱왈 소싱이 누차 디왕의 익홀호심을 입스오노 일호
 도 갑호미 업삽더니 이제 셔학사-집에 업고 다만 창두 잇스니 밍장팔십인을 썩고 건
 장호 시너 십여명을 다리고 반야 삼경에 셔부에 돌입하야 왕씨 실중에 드러가 왕씨를
 교즈에 담아다가 방에 너코 디왕이 정을 일우신후 즉시 왕비를 봉호스 금은으로 그마
 암을 갖겁게 하시며 부귀와 필빅으로써 그 일신을 영귀케하시면 너즈의 마음은 지물
 노 이룬다호오니 날이 가로써 그 일신을 영귀케하시면 너즈의 마음은 지물노 이룬다
 호오니 날이 가고 달이 오리면 즈연화락하시리이다(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76쪽)

㉡ 일 " 은 소져 심귀 불평호미 소세를 찍호고 종일 신음하더니 괴운이 곤뢰하야금
 " 을 포설호고 일죽이 누엇더니 문득 청풍이 " 러노며 야 " 드러오시니 몸에 운관무의
 로-얼골이 화려호지라 소져 반겨 압히 노아가 직비현알호온디 공이 혼연왈 오녀는
 이제로 썩나 집을 썩는 남으로 가면 즈연 구홀 스편이 잇스리라 만일 지완호면 디익
 을 맞나리니 노부의 말을 헛도이 알지말노호거늘(하략)(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
 기연 권지일>, 77쪽)

본에서는 월향이 자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활자본에서는 오히려 제왕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제왕의 집을 나와 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쌍주기연>에 등장하는 시비 춘섬 또한 경판본에서는 왕혜란과 함께 납복을 하고 제왕으로부터 도주하다가 도적에게 납치되자 왕혜란과 함께 자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활자본에서는 도적에게 돈을 주어 달래어 도적으로부터 납치당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⁵⁾

이처럼 경판 33장본과 비교했을 때, 활자본에서는 양반 여성인 이부인과 왕혜란과 관련된 서사가 확장되어 있으며, 왕혜란의 시비 월향과 춘섬의 적극성이 부각되어 있다. 이부인과 왕혜란과 관련된 서사는 주로 도적 오이랑과 제왕과 연관된 형태로 드러나는데, 오이랑과 제왕은 각각 서경과 이부인,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을 방해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천자의 아들인 제왕은 왕혜란이 서천홍과 혼인하기 전부터 왕혜란과 혼인하고 싶어 했던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제왕과 제왕으로부터 도망가던 중에 만난 도적 역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판본과 달리 활자본에서만 확인되는 왕혜란의 시비 월향과 춘섬의 적극적인 행동은 궁

24) (상략)소계 다시 못고져 하다가 홀연 놀느 썩다르니 침상일몽이라 양비다려 몽스를 이르니 월향왈 선노야-이러듯 명〓 하시니 소계는 쌀이 납복을 기착하시고 추섬을 다 리시고 후문으로 다라나사 남으로 향호소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77쪽)

25) 선시에 왕소져 취섬을 뒤문곶 포귀속에 숨엇더니 삼경씩에 화광이 출턴하며 칠팔십 명 강도가 돌입하야 월향을 잡아 교즈에 너허감을 보고 덕경하야 추섬으로 더부러 급히 흥하야 성남문에 이르니 (중략) 소계 혼불 부체하야 아모리 할줄 모로니 추섬이 은즈 십양을 주며왈 이뵈게 다른 거시 업다하니 그놈이 바다 가지고 가거늘 소계 추섬의 손을 잇그러 밤식도록 흥하야 흥 곳에 다〓 르니 턱식이 발가오는지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82쪽)

극적으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쌍주기연>의 보수적인 성향이 활자본에서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쌍주기연>은 양반 남성인 서천홍이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충과孝를 실현하며 천정연분인 왕혜란 뿐만 아니라 양신청 및 왕혜란의 시비 월향과 춘섬까지도 첩으로 맞아들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활자본에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갈등이 심화되고 이들의 갈등이 천민 여성인 왕혜란의 시비 월향과 춘섬의 적극적인 활약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판 <쌍주기연>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애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작품 자체의 보수적인 성향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⁶⁾

4. 경판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소설사적 의미

1) 대중 소설의 유형과 성향 변모

<쌍주기연>은 선행 연구에서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로 논의될 정도로 두 소설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판 <쌍주기연>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귀족적 영웅소설의 성격은 축소되고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점차 부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주기연>의 경판본 가운데 가장 먼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33장본이 1850년에 출간되었고 활자본이 1915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판 <쌍주기연>은 19세기 중

26) 그러나 활자본에서도 <쌍주기연> 자체의 체제 옹호적인 보수적인 성향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반에 출간되어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20세기 초 활자본이 출간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세기 말에서 19세까지 방각본 소설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의 유형이 체제 옹호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는 <조웅전><소대성전>과 같은 귀족적 영웅소설이다. 또한 귀족적 영웅소설은 경판본 소설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의 유형이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출현한 활자본 소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소설의 유형은 <춘향전>과 같은 애정소설이다.²⁷⁾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경판 <쌍주기연>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애정 서사의 완결성이 강화되고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줄어들면서 애정 갈등이 심화된 것은 <쌍주기연>의 귀족적 영웅소설적인 측면이 약화되면서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강화된 현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의 유형이 귀족적 영웅소설에서 애정소설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쌍주기연>의 경판 33장본이 19세기 중반에 간행되었고 활자본이 20세기 초에 간행된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의 근본적인 성향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애정이라는 체제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분 문제를 통해 애정 갈등을 부각시킨 <춘향전>과 같은 작품은 <조웅전>이나 <소대성전>과 같은 귀족적 영웅소설과 달리 체제 비판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더구나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춘향이 천민 여

27)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8, 286쪽.

성 또는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신분으로 설정되어 양반 남성과 애정 갈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품이 드러내는 성향은 상당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쌍주기연>의 활자본에서 애정 갈등이 심화되고 천민 여성의 적극성이 부각된 것은 20세기 초 활자본으로 출간되어 절대적으로 많은 독자층의 호응을 받은 <춘향전>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의 유형과 성향이 변모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2) 활자본 <삼생기연>의 출현 동인

<쌍주기연>의 경관본 이본들은 대중성을 확보해 가면서 활자본이 출간되는 계기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활자본 <삼생기연>이라는 작품이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명에서도 드러나듯이 활자본 <삼생기연>에는 <쌍주기연>의 주인공이 겪는 애정 갈등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생기연>은 천정연본인 위명과 양능옥이 옥소로 인연을 맺은 후에 위명이 연왕의 정치적인 회유를 피해 가정을 떠난 사이, 양능옥이 연왕의 아들 진왕으로부터 正妃가 될 것을 강요받고 도주하면서 애정 갈등을 겪지만 결국 위명과 양능옥이 재회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처럼 <삼생기연>에서 확인되는 위명과 양능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애정 서사는 <쌍주기연>의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쌍주기연>과 <삼생기연>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애정 서사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쌍주기연>과 <삼생기연>의 애정 서사

| | <쌍주기연> | <삼생기연> |
|---|---|---|
| ① | 천정연분인 서천홍과 왕혜란이 구슬을 매개로 혼인한다. | 천정연분인 위연과 양능옥이 옥소를 매개로 혼인한다. |
| ② | 서천홍이 남만을 정벌하러 간 사이 천자의 아들 제왕이 왕혜란을 혼인하고자 한다. | 위연이 연왕과 정치적 갈등을 겪고 집을 나간 사이 연왕의 아들 진왕이 양능옥을 정비로 맞이하고자 한다. |
| ③ | 제왕이 여복을 하고 왕혜란을 보고 온다. | 진왕이 여복을 하고 양능옥을 보고 온다. |
| ④ | 왕혜란이 제왕의 의도를 알고 시비 춘섬과 함께 납복을 하고 서천홍을 찾아 나신다. | 양능옥이 진왕의 의도를 하고 시비 난향·유모와 함께 납복을 하고 위명을 찾아 나신다. |
| ⑤ | 서천홍과 왕혜란이 재회한다. | 위연과 양능옥이 재회한다. |

또한 활자본 <삼생기연>은 1915년에 출간된 활자본 <쌍주기연>보다 늦은 1923년에 출간되었다. 이처럼 <삼생기연>은 <쌍주기연>의 경판본과 활자본보다 후대에 출간되었고 <쌍주기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애정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자본 <삼생기연>은 <쌍주기연>의 경판본이 획득한 대중성에 힘입어 출간된 작품이라 생각된다.

<삼생기연>은 필사본 <쌍열옥소록>과 <쌍열옥소삼봉> 등의 작품과 이본 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²⁸⁾ 계명대 소장 115장 <쌍열옥소록>의 필사 연대는 무오년으로, 101장 <쌍열옥소삼봉>의 필사 연대는 갑술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쌍열옥소록>과 <쌍열옥소삼봉>의 필사 연대는 각각 1858년과 1918년 그리고 1814년과 1874년으로 한정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필사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²⁹⁾ 하지

28) 활자본 <삼생기연>과 이본 관계에 있는 필사본 <쌍열옥소록>은 계명대 소장본, 국립도서관 소장본, 고려대 소장본, 박순호 소장본이 있는데, 고려대 소장본과 박순호 소장본은 낙장본으로 밝혀져 있다(최윤희, 『필사본 <쌍열옥소록>과 활자본 <삼생기연>의 특성과 변모 양상』, 『우리어문연구』26, 우리문화회, 2009, 122~127쪽).

29) 계명대 소장 115장 <쌍열옥소록>의 경우에는 권지상과 권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 <쌍열옥소록>이나 <쌍열옥소삼봉> 모두 19세기에 필사된 작품으로, 활자본 <삼생기연>보다는 먼저 출현한 이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활자본 <삼생기연>은 필사본 <쌍열옥소록>이나 <쌍열옥소삼봉>을 저본으로 하여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그렇지만 필사본과 달리 경판본과 활자본은 철저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상업적 출판물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활자본 <삼생기연>이 출간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필사본 <쌍열옥소록>이나 <쌍열옥소삼봉>보다는 경판 <쌍주기연>이 획득한 대중성에 힘입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활자본 <삼생기연>이 출간된 연대와 비슷한 시기에 <옥소기연><유화기연> 등과 같이 기연류의 소설들이 출간된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³⁰⁾ 이와 함께 필사본 <쌍열옥소록>이나 <쌍열옥소삼봉> 역시 경판 <쌍주기연>의 대중성에 힘입어 출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판 <쌍주기연>이 획득한 대중성은 필사본 <쌍열옥소록>와 <쌍열옥소삼봉>을 저본으로 한 활자본 <삼생기연>이 출현하는 동인이 작용했다는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³¹⁾

저 있는데, 모두 마지막에 ‘무오옥월초팔일필서라’로 필사 연대를 밝혀 놓았으며, 101장본 <쌍열옥소삼봉>의 경우에도 마지막 장에 ‘갑술삼월일실서하라(하략)’으로 필사 연대를 분명하게 밝혀 놓고 있다(계명대 소장 115장 <쌍열옥소록 권지상>, 120쪽, <쌍열옥소록 권지이>, 232쪽; <쌍열옥소삼봉 권지단>, 『필사본고전소설전집』14, 아세아문화사, 1982, 590쪽; 최윤희(2009), 앞의 논문, 126쪽 참조).

30) 활자본 <옥소기연>은 1915년에 출간되었고, 필사본 <유화기연>은 1905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유화기연>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활자본 <유화기몽>은 1918년에 출간된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5, 아세아문화사, 1976, v, xviii쪽; 이윤석·김경미 교주, <유화기연 해제>, 『유화기연·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4쪽).

31) <삼생기연>이 판소리 광대들에 의해 창극으로 공연되었다는 기록이 『매일신보』에서 전하는 것으로 보아, 활자본 <삼생기연> 역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관 33·32·22·16장본과 활자본 <쌍주기연>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과 소설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족적 영웅소설과 애정소설이 획득한 대중성과 경관 33장본 <쌍주기연>이 획득한 대중성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경관 <쌍주기연>이 지속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활자본이 출간되는 배경과 원인이 되었다. 둘째, 경관 <쌍주기연>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천홍과 왕혜란의 애정 서사의 완결성이 강화되었고 서천홍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축소되면서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고 애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천민 여성의 적극적인 활약상이 부각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이 약화되었다. 셋째,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대중성을 확보한 소설의 유형과 성향이 변모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관 <쌍주기연>이 확보한 대중성은 활자본 <삼생기연>이 출현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쌍주기연>을 대상으로 대중성과 연관된 논의를 전개했지만 기연류의 소설에는 <삼생기연>을 포함하여 <옥소기연><유화기연><용매기연><옥란기연><옥연재합기연>과 신소설 <우중기연>과 같은 작품이 존재한다. 작품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기연류의 소설들은 대체로 애정 서사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연류 소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애정 서사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것도 의미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것으로 보인다(정충권, 『<삼생기연>의 작품세계와 후대적 수용』, 『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화회, 2003, 12~15쪽).

또한 본 논문에서는 경관 <쌍주기연>의 대중화 양상에 내포된 소설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활자본 <삼생기연>과 필사본 <쌍열옥소록><쌍열옥소삼봉>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쌍주기연>과 함께 <삼생기연><쌍열옥소록><쌍열옥소삼봉>의 관계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삼생기연><쌍열옥소록><쌍열옥소삼봉> 그리고 <옥주호연><쌍주기연><쌍열옥소삼봉>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쌍주기연><삼생기연><쌍열옥소록><쌍열옥소삼봉>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연류 소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 논의와 <쌍주기연><삼생기연><쌍열옥소록><쌍열옥소삼봉>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경관 3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연세대학교, 1975.
 계명대 소장 115장 <쌍열옥소록>
 고려대 소장 경관 22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관 16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주기연 권지일>, 한성서관, 大正四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생기연>, 태화서관, 大正十二年.
 <쌍열옥소삼봉권지단>, 『필사본고전소설전집』14, 아세아문화사, 1982.
 <옥소기연>, 『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5, 아세아문화사, 197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경관 33장본 <쌍주기연 권지단>

2. 논문 및 저서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1~510쪽.
 권영민,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1~551쪽.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1~415쪽.
 서혜은, 『경관 방각소설의 대중성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1~200쪽.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557~573쪽.
 이윤석·김경미 교주, 『유화기연·숙녀지기』, 경인문화사, 2008, 1~483쪽.
 이창현, 『<쌍주기연> 판본 연구』, 『인제논총』9, 인제대학교, 1993, 447~462쪽.
 _____,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1~606쪽.
 정충권, 『<삼생기연>의 작품세계와 후대적 수용』, 『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화회, 2003, 339~356쪽.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8, 1~472쪽.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 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최윤희, 『필사본 <쌍열옥소록>과 활자본 <삼생기연>의 특성과 변모 양상』, 『우리어문연구』 26, 우리문화회, 2009, 119~151쪽.
 한정미, 『<쌍주기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1, 1~109쪽.
 _____, 『<쌍주기연>에 수용된 삼화 고찰』, 『대학원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149~173쪽.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ise Aspects and Its Meanings of Novel History
in <Ssang-Ju-Gi-Yeon> of Seoul Block Printed

Seo, Hye-eu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spects and its meanings of novel history in <Ssang-Ju-Gi-Yeon> of Seoul block printed.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contain type of aristocratic hero-novels, love-novels. Type of aristocratic hero-novels love-novels are very popular from the mid-19th century to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of 33 sheets version have popularity. So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was consistently able to have popularity from the mid-19th century to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Seoul block printed of 33 sheets version become original script of 32 · 22 · 16 sheets version and a printed book. These course is prescribe to popularization of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in this paper. Seoul block printed of 33 sheets version and 32 sheets version are different from an end. But the end of 33 · 22 · 16 sheets version are sameness. And Seo Chen Hng and Wang Hye Ryun's narrative of love is strengthen in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of 22 and 16 sheets version. And Seo Chen Hng's a heroic activity is reduced and aspects of love-novels are embossed in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of 22 and 16 sheets version. Also suffering of yang-ban women are strengthen in <Ssang-Ju-Gi-Yeon> of printed book and activities of lowly women are magnified. So conservatism of <Ssang-Ju-Gi-Yeon> is diminished in printed book more than Seoul block printed.

Therefore popularity course of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reveal transformation of popularity novel type and inclination. The type was changed from aristocratic hero-novels to love-novels. Aristocratic hero-novels is conservative. But love-novels is progressive. And popu-

larity of Seoul block printed 〈Ssang-Ju-Gi-Yeon〉 cause printed book 〈Sam-Saeng-Gi-Yeon〉 and manuscript of 〈Ssang-Yeol-Ok-So-Rok〉 〈Ssang-Yeol-Ok-So-Sam-Bong〉.

Key Words Seoul block printed, popularity, <Ssang-Ju-Gi-Yeon>, <Sam-Saeng-Gi-Yeon>, aristocratic hero-novels, love-novels

논문투고일 : 2013. 10. 16

심사완료일 : 2013. 11. 25

게재확정일 : 2013. 11. 26

